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외 독립운동

김 희 곤*

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나라 밖에서 펼쳐진 한국 독립운동과의 관계를 추적하는 데 목적을 둔다. 양자의 관계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 자체가 국외지역에 펼쳐진 한국 독립운동의 성과에 바탕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나라 밖의 독립운동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다. 이를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시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머물던 상해시기(1919~1932)이다. 임시정부는 수립 시기에 국내 행정 장악에 노력했다. 그 결과 국내 곳곳에 지방 관리를 임명하고 인구세를 거두었다. 또 만주의 군사조직을 정부 아래로 편입시켰다.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결성된 대한국민의회와 통합을 일구어 냈고, 미주지역 동포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

둘째는 8년 동안 중국 내륙을 옮겨 다닌 長征期(1932~1940)였다. 윤봉길 의거 직후 상해를 떠난 임시정부는 극도로 어려운 길을 걸었다. 숨어서 떠도는 처지라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한다거나 지휘하는 일은 아예 어려웠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주변 독립운동정당 조직과 연합을 도모하였다. 그러면서 미주지역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하였다.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곧 光復陣線 결성이 바로 그 결실이다.

셋째는 중경시기(1940~1945)였다. 우파 3개 정당이 한국독립당으로 통합되고, 주변에 있던 임시정부 반대세력을 정부로 끌어들이었다.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가 그들이다. 하나는 중국공산당 영역에 있던 華北朝鮮獨立同盟, 조선의용군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임시정부가 멀고먼 소련 동부지역 하바로프스크에 있던 김일성부대와의 연결을 시도한 것이다. 중경시기 임시정부에게 ‘국민’다운 역할을 맡은 것이 미주 동포사회였다. 이들은 인구세와 성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보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외 독립운동 세력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건국과 정부 수립 자체가 그 세력의 활동 덕분인 때문이다. 그 뒤에도 정부의 존속 자체가 국외 독립운동 세력이라는 존재 위에 가능했다.

[주제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상해시기, 장정시기, 중경시기,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 안동대 교수 / heegkim@andong.ac.kr

— 목 차 —

I. 머리말	IV. 장정시기(1932~1940)
II. 근대국가와 정부 수립	V. 중경시기(1940~1945)
III. 상해시기(1919~1932)	VI.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인이 머문 곳 가운데 독립운동이 없던 곳은 없다. 한국인이 있던 모든 곳이 곧 한국 독립운동의 터전이자 기지였다. 의병을 벌이던 인물들은 한계에 부딪치자 만주로 이동하여 새로운 투쟁을 준비했고, 심지어 하와이로 살려갔던 노동 이민자들도 그곳에 발을 딛자마자 나라 찾는 일에 힘을 보태고 나설 정도였다. 나라를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서게 되던 1909년에는 의병도 계몽운동가도 모두 나라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라 무너지는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니,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라 밖에 터전을 만드는 일이었다. 국외 독립군 기지, 이것은 나라를 되찾으러 나서는 출발점이었다.

1910년대에 나라 밖에서 틀을 갖춘 독립운동 기지는 만주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상해를 비롯한 중국관내지역, 두만강 너머의 연해주지역,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미주지역, 일제의 본거지인 일본지역 등이 거기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이 나가서 머물고 있던 세계 모든 곳에서 독립운동의 터전이 마련되고 있었던 셈이다. 그들의 활동이 한국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들이 가지는 관련성은 두드러진다. 나라와 정부를 세우는 데에도, 또한 이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도 국외 독립운동가들의 기여는 절대적이었다. 국가와 정부를 나라 밖에서 세우고 이끌어가는 형편이므로 나라 밖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와 정부의 이름이다. 대한민국은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성립한 민주공화국이자 독립국이다. 임시정부는 이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조직이다. 그리고 임시의정원은 의회조직이다. 다만 국토를 회복하면 정식 정부와 정식 의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헌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에 국토를 회복하면 “국회를 소집한다”고 명시했다. 1910년에 나라가 망할 때는 황제가 주체가 되는 大韓帝國이었다. 하지만 1919년에 새로 세운 나라와 정부는 국민이 곧 주인이 되는 民國이자 민주공화정부였다. 바로 이러한 국가와 정부를 수립하는 데에는 국민들의 뜻과 바램이 담겨있지만, 무엇보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인 지향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라 밖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과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 독립운동의 전개과정도 정부와 줄곧 얽히면서 돌아갔다.

이 글은 먼저 나라 밖에서 펼친 독립운동이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정리한다. 나라를 잃자마자 나라 밖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건국을 목표로 삼고, 더구나 군주사회가 아닌 시민사회를 지향하여 근대국가를 만들어간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서 나라 밖에서 세워진 근대국가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임시정부가 나라 밖에서 조직되고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과 가지는 연계성을 추적한다. 서술 시기는 임시정부가 머물던 곳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눈다. 上海時期(1919~1932), 長程時期(1932~1945), 그리고 重慶時期가 그것이다.¹⁾

II. 근대국가와 정부 수립

나라가 무너져가자, 이를 지탱해 내려고 몸부림치던 인사들은 새로운 방안을 찾아 나섰다. 나라를 지켜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나라 밖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자는 방안이 그래서 나왔다. 더 이상 국내에 일제와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의병은 철저하게 짓밟혔고, 계몽운동도 항일투쟁의 성격이 강한 경우는 대부분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나라 밖으로 빠져나간 독립운동가들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지리적으로 옮겨가기 쉬운 만주에는 곳곳에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졌고, 연해주지역도 마찬가지였다.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한 이민들도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나섰고, 미국 본토에서도 그랬다. 또 가까운 일본에서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조직들이 형성되어 갔다.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1910년 나라를 잃게 되자, 이번에는 나라를 되찾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1910년 나라를 잃자마자,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목표는 나라를 되찾아 세우는 쪽으로 바뀌었다.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무너진 나라는 황제가 주인인 大韓帝國이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이 목표로 삼은 독립국은 대한제국의 복원이 아니었다. 1910년대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은 大韓民國의 건국이었다. 나라를 잃은 직후에 미주지역 동포들이 내놓은 건국방향도 그랬고, 1917년 大同團結宣言은 그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국민이 주인이자 주체가 되는 민주정, 의회를 갖춘 공화정이 그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1910년대 독립운동의 화두는 독립국가의 건설과 민주공화정의 구현이었다. 1910년대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추구한 목표는 바로 독립국가의 건설만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체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나라 밖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국외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한 면은 두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1) 長程은 上海나 重慶과 달리 지역 이름이 아니지만, 중국 내륙 여러 도시를 7년 동안 이동하던 시기라서 이렇게 이름 붙인다. 최근에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행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시리즈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상해시기'와 '장정시기', 그리고 '중경시기' 등 세 권으로 나누어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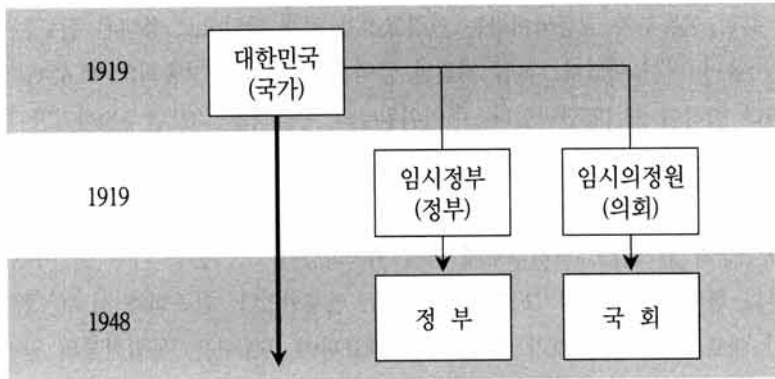
첫 단계는 바로 독립국가 건설과 민주공화정체 수립을 향한 그들의 노력과 활동이다. 그 노력은 나라가 무너지자마자 시작되었다. 이상룡과 이회영, 여준과 문창범 등을 비롯한 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들, 신규식과 신채호 등 상해지역의 활동가들, 안창호와 박용만을 비롯하여 미주지역에 자리 잡은 인물들의 활동이 그랬다. 이들은 독립군을 길러내고 군대를 조직하였으며, 국내 독립운동을 지원할 조직을 만들어냈다. 그 성과가 1910년대 후반에 들어 눈에 띌 만큼 나타났다. 1919년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의 등장은 이를 말해준다.

두 번째 단계, 곧 독립국을 세우는 계기를 이들이 만들어냈다.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독립기회로 포착한 것이다. 1919년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에, 한국문제를 상정시키기 위해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고 이를 지원할 국내 동포들의 행장을 유도한 것이다. 여기에 호응하여 2·8독립선언이 적의 심장부 도쿄에서 일어났고, 3월 1일에는 서울과 평양을 비롯한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으며, 3월 12일에는 길림과 서간도 유하현 삼원포에서, 3월 13일에는 연길 용정에서, 그리고 뒤를 이어 한국인이 머물던 세계 모든 곳에서 독립이 선언되었다. 그렇게 선언된 독립국의 이름을 정하고, 정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정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2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 성립으로 출발하였다. 국내에서도 같은 행적이 나타났다. 상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나타났다.

1919년 4월 10일, 상해에 모여든 독립운동가 대표 29명이 건국과 정부 수립을 논의했다. 여기에 합류한 독립운동가들은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대표들이었다. 상해에서 터를 잡은 신규식과 여운형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 파견된 현순, 만주에서 활약하던 이동녕과 김동삼, 미주지역에서 합류한 여운홍 등, 당시 독립운동계를 대표하던 인물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 밤을 새며 논의한 끝에, 4월 11일 오전 건국과 정부 수립을 마무리 지었다.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임시의정원 조직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과정에 나라 밖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몫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첫째, 국내 3·1운동이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사실상 그 3·1운동의 계기는 나라 밖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판단과 노력으로 마련된 것이다. 둘째, 한국 역사에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자 근대국가를 건설한 것도 국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결정적이었다. 독립국가를 만드는 선에 그치지 않고, 근대국가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특별히 눈여겨 볼 사실이다.

거기에는 독립국 건설과 자주정부 수립, 그것도 민주공화정체 수립이라는 성과가 담겼다. 이는 독립운동을 통하여 근대국가 건설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근대국가 건설이란 다름 아니라 근대 시민혁명의 성과이다. 국외 독립운동의 결실이 바로 시민혁명의 성과인 근대국가의 달성을 가져온 것이다. 다만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으로 운영하다가, 국토를 회복하면 정부와 국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밝혔다.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은 바로 1910년대 국외에서 펼친 독립운동의 목표를 하나로 수렴해낸 결실이었던 것이다.



대한민국과 정부·의회 계승

* 김희곤, 『만주벌 호랑이 김동삼』, 지식산업사, 2009, p.95.

Ⅲ. 상해시기(1919~1932)

1. 건국과 정부 수립기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정부)와 임시의정원(의회)를 조직하자마자, 독립운동계를 통합하는 것이 다음 과제였다. 1910년대 이후 만주에 뿌리를 내린 독립군 조직이 가장 돋보이는 존재였고, 상해를 비롯한 중국관내지역의 독립운동단체, 연해주지역에 터를 잡은 독립군과 단체, 하와이와 미국본토의 동포사회, 일본의 유학생과 동포 등이 모두 그러했다. 더구나 건국과 정부 수립에 앞서 프랑스 파리로 출발한 김규식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지역마다 적절한 연계방안을 추진하였다. 국내와 일본, 만주와 연해주로 연락원을 보내 독립선언과 대표파견에 필요한 자금모집을 추진한 것이다.

임시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우선 연해주에서 먼저 성립한 대한국민의회와 통합하는 것이었다. 안창호가 앞장서 벌인 정책이 끝내 성공하여 이동휘가 상해에 국무총리로 부임하면서 통합정부가 구성되었다. 거기에 국내 한성정부와의 통합이라는 숙제도 해결되면서 1919년 9월에는 통합정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미주지역 동포사회는 자연스럽게 임시정부 아래로 들어왔다. 우선 가장 큰 세력을 가진 대한민국민회는 안창호가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물 흐르듯 연결되었고, 더구나 이승만이 임시대통령으로 추대되고 구미위원부가 설치되면서 더욱 긴밀하게 묶여졌다. 건국과 정부 수립기에 재정 문제 해결에는 미주지역 동포들의 역할이 특기할만하다. 1919년 5월 안창호가 상해에 도착할 때, 미주동포들로부터 모금해온 5만 달러는 정부가 뿌리를 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뒤로도 미주동포들의 재정적인 기

여는 이어졌다. 특히 연통부와 교통국이라는 연결고리가 일제 탄압으로 붕괴된 뒤로는 미주동포들의 자금에 기대는 비율이 더 늘어났다. 직접 지원된 금액은, 국민회 중앙총회의 46,454달러와 구미위원부의 16,732달러를 합하여 63,186달러였다. 구미위원부의 송금액은 1921년 8월까지만 합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소간 임시정부에 보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70,000달러 이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주교민들로 거둔 자금 가운데 20~23% 정도가 임시정부에 도착했던 것이다.²⁾

만주지역의 독립군과 단체들도 임시정부에 쉽게 귀속하였다. 3·1운동 이후 군정부를 내세우던 세력들이 임시정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그 휘하 조직으로 편제되었다. 한족회와 서로군정서, 대한국민회와 대한군정서가 대표적이다. 안창호가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바탕이 있었던 것이다.³⁾

초창기 임시정부의 군사활동은 주로 시베리아와 만주일대의 독립군 단체에 의지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는 국제회의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립되고, 또 그 회의에 대한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임시정부로서는 당장 독립전쟁을 수행할 만한 군사활동을 벌이기 어려웠다.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무장독립군을 거느리고 있던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의 독립운동단체에게 그 역할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1920년에 들어서는 스스로 독립군을 조직하거나 군사력을 기르는 방안도 추진했다. 직할 부대를 편성하거나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약하던 군사조직을 임시정부 아래로 편입하는 정책이 그 핵심이었다. 무관학교 설립이나 비행대 편성 시도 등도 그러한 노력에 속한다.⁴⁾

임시정부는 만주지역의 독립군 조직을 내세워 독립전쟁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는 독립전쟁을 펼치던 대표적인 단체였다. 또 대한청년단연합회와 대한광복군총영은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육군주만참의부는 임시정부의 직할단체였다. 1920년 만주에 파견된 최동오는 독립군단체가 모두 22개요, 무장군인이 약 2,000명을 넘는다고 보고했다.⁵⁾ 그 가운데 대한광복군총영은 임시정부의 직속기관으로 독립전쟁을 펼치고 있던 유일한 단체였다. 대한광복군총영은 1920년 5월 7일 상해에서 안창호·김희선·이탁 등이 논의하기 시작하여, 6월 남만주에서 대한독립단과 대한청년단연합회의용대가 합쳐 결성되었다.⁶⁾

한편 임시정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비행사양성소를 설치하여 비행대 편성을 시도하였다. 이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국내에 선전전단을 뿌린다는 데 목표를 두었는데, 이승만과 안창호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⁷⁾ 이를 실천에 옮긴 인물은 군무총장 노백린과 캘리포니아주 북쪽 Glenn County

2) 고정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미주지역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p.503.

3) 『獨立新聞』 1920년 2월 5일자.

4)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정부』 1(상해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p. 120~121.

5) 申肅, 『나의 一生』, 일신사, 1963, p.61.

6)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대한민국공보처, 1949, p.61.

7) 『島山日記』 1920년 1월 19일, 2월 2일, 2월 8일자.

의 Willows에 있던 ‘쌀의 왕’ 金鍾林이었다. 이들은 1920년 2월 윌로우스 농장 부지에 한인 비행사양성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예상하던 독립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점차 동포들의 지원이 줄어들게 되자,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쳐 끝내 문을 닫고 말았다.⁸⁾

중국관내지역의 독립운동은 임시정부에 절대적인 관계를 가졌다. 상해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임시정부의 직할조직이었다. 이밖에도 남경·광주·천진 등에도 독립운동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임시정부에 긴밀한 연락망을 가지고 움직였다. 다만 북경에는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여 있었다. 신채호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미국 윌슨대통령에게 위임통치를 주문했던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임한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었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정리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파리 강화회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때문에 정부 수립 이전에 파견된 신한청년당 대표 김규식을 바로 정부 대표 이름을 주었던 것이다. 임시정부는 수립되자마자 파리위원부를 설치하고 김규식을 외무총장겸 파리위원부 대표로 선임했다. 미국에도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폈다. 게다가 임시대통령이 미국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그 활동 자체가 임시정부의 것이기도 했다. 미주지역에서는 특히 대한인국민회가 임시정부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

러시아지역의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관계도 밀접하게 전개되었다. 이동휘가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부임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정부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연해주로 돌아간 인물들은 독자적이거나 반임시정부의 길을 걸었다. 더구나 이승만과 갈등을 벌인 이동휘마저 연해주로 돌아가게 되면서, 사실상 임시정부와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 사이에 연결이 느슨해지고 말았다.

2. 조직 개편과 난국 돌파 시기

건국과 정부 수립 직후에 임시정부는 나라 밖의 독립운동 조직들과 활발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1920년을 넘어서면서 독립운동계를 이끌어 가는 데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안팎의 문제가 얹혀 있었다. 임시정부 스스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에 한계를 보인 것이 내부 문제이고, 임시정부의 생명줄을 차단하는 일제의 정책이 외부 문제이다. 이승만과 이동휘의 갈등은 수립기 정부를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거기다가 일제가 임시정부로 향한 국내의 지원 연결망을 모조리 잘라 버렸던 것이다. 또 만주지역을 침공하여 동포사회를 짓밟음에 따라 독립군 조직이 크게 위축된 것도 마찬가지였다.

임시정부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난국을 헤쳐 나갔다. 1923년에는 국민대표회의를, 1926년부터는 유

8)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I (상해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122.

일당운동을 벌이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1926년에 국무령제로 체제를 바꾸었으며, 1927년에는 국무위원제를 채택한 것도 모두 이러한 노력의 과정이었다. 그러다가 1930년을 맞으면서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여 以黨治國 체제를 갖추었고,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의열투쟁을 방략으로 펼쳐나갔다.

이러한 시기에도 임시정부는 국외 독립운동과 줄곧 연계작업을 폈다. 자유시참변 이후 흩어져 돌아온 독립군을 다시 임시정부와 연계시켜 나갔다. 1920년대 중반에 들어 만주에서 3부가 세워지고 다시 안정을 되찾자 임시정부는 이들과 다시 엮기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참의부는 조직을 정비하면서 대표를 임시정부에 보내 그 전말을 보고하였고, 특히 임시정부 직할 아래 남만주 군정부로 인정하고 지휘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자 임시정부는 김승학과 이유필 등 요인을 파견하여 군정부 조직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조직 이름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주만참의부'로 바꾸었다.

1923년 1월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와 국외 독립운동의 관계를 알려준다. 이 회의의 가장 핵심 주제는 임시정부의 방향을 찾는 것이었다. 이는 1921년을 지나면서 독립운동계의 중심부 구실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상해를 6개월 동안 방문하고 떠난 뒤, 임시정부의 구심력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국민대표회의로 나타났다. 1923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상해에서 열린 이 회의에 세계 모든 곳의 한국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대표권을 인정받은 130여명이 참석하였다.⁹⁾ 한국 독립운동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이 회의에서 가장 주된 주제가 결국 임시정부의 방향이었다. 임시정부를 새롭게 개조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인지가 그 핵심이었다. 국민대표회의는 6월에 들어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뉘어 흩어지고 말았지만, 뒤집어 보면 이것도 임시정부가 독립운동계의 대표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1925년 이승만 탄핵 이후, 박은식이 제2대 임시대통령을 지내는 짧은 동안, 임시정부는 개헌을 단행하여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였다. 국무령제가 그것이다. 이 무렵 임시정부는 만주지역의 최고 지도자를 추대하여 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정의부의 핵심인물인 이상룡을 국무령으로 추대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초대 국무령을 맡은 이상룡이 나라 안팎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내각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임시정부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끝내 내각 구성에 실패하였다.

미주지역과 임시정부 관계는 이승만 탄핵 이후 복잡해졌다. 이승만 계열은 임시정부에 냉정한 자세를 보였지만, 이와 달리 반이승만 세력은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하와이는 이승만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나뉘었다. 미국 본토에서도 안창호를 지지하는 세력은 임시정부를 줄곧 지원하였다. 안창호가 1926년부터 유일당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재미 동포들을 방문하여 강연회를 열면서 자금을 확보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⁰⁾

9)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p.358.

10)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pp.360~361.

유일당운동 시기에는 임시정부와 만주지역 독립운동계가 다시 연결되었다. 안창호가 앞장서서 추진한 좌우합작운동, 유일당운동이 임시정부 주변에서 만주로 확산되어 갔다. 임시정부 스스로 유일당 운동에 매달리면서,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잠시 국무령을 지낸 홍진을 만주로 파견하기도 했다. 그 결과 만주지역에도 1927년부터 1929년 사이에 유일당운동이 진행되었다. 국내와 일본에서 펼쳐진 신간회를 포함하면 그 때는 전체 독립운동계의 좌우합작 시기였다. 그것을 선도해 나간 것이 바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펼쳐진 유일당운동이었다.

임시정부는 1930년 무렵 의열투쟁을 주된 방략으로 채택하였다. 독립전쟁을 치를 만큼 군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한 독립운동의 열기가 식어있는 현상에서, 이를 타개할 방안이 필요했다.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노병회를 조직하여 10년을 기한으로 삼고 군인과 전쟁비용 마련에 힘을 썼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그러자 효율적인 투쟁 방법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한인애국단의 거사로 나타났다. 여기에 미주지역 동포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거사자금이 대부분 미주 동포로부터 왔던 터였다. 김구가 엄항섭을 통해 미주 동포들에게 편지를 계속 보냈고, 거기에 응답한 인사들이 자금을 보내오며 따라 한인애국단의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英文에 문맹이라 皮封도 쓸 수 없고 동포들 중에 幾個 친지가 있으나 주소도 알 수 없으므로 엄항섭, 안공근 둘의 助力으로 그 곳의 주소 성명 幾人을 知得하여 가지고 임시정부의 현상을 극진 설명하고 동정을 구하는 편지를 써서 엄군이나 안군에게 피봉을 써서 우송하는 것이 유일의 사무라.¹¹⁾

그의 정성과 계획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편지에 대한 회답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시카고·하와이·샌프란시스코·멕시코·쿠바 등에서 점차 의연금금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1년 정도 벌인 그의 노력 결과 의연금금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갔다.¹²⁾ 그런 바탕 위에 한인애국단이 등장하였다.

IV. 장정시기(1932~1940)

윤봉길의거 직후 임시정부가 상해를 떠나 길고긴 이동길, 長程에 올랐다. 항주와 진강을 거쳐, 장

11)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 『白凡金九全集』 1, 대한매일신보사, 1999, p.508.

12) 백범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의연금금을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을 전해주는 증언이 남아있다. 즉 “미주에서 1년에 몇 백 달러씩 임시정부로 우송해 왔어요. 그러나 상해의 총우편국으로 오는 것이니 찾으러 가야 합니다. 총우편국은 흥구, 왜놈들이 조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공동조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범이 손수 갈 수 없고 자기 심복 부하를 보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찾아다가 백범에게 준 부하도 있고, 노름에 써 버린 놈도 있고, 잃어버렸다는 놈도 있었어요. 그때 형편이 그랬어요. 그런데 백범 손에 돈이 들어오면 백범은 주머니에 넣고 실로 꿰매어 봉해 버립니다. 자기 사생활이 세상없이 어려워도 그 돈을 쓰는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일하려는 사람이 오면 그때서야 끌려서 다 줍니다.”(鄭華岩 증언, 李庭植·金學俊,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pp.323~324.)

사, 광주, 유주, 기장, 그리고 마지막 중정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고난의 행군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 동안 임시정부는 나라 밖 다른 곳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웠다. 스스로 존립해 나가기도 힘겨운 시절이었기 때문이고, 더구나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임시정부가 국외 독립운동 조직들과 가진 관계는 대부분 그 주변을 맴돌던 세력이었다. 여기에 덧붙일 수 있다면 미주지역 단체들과 가진 연계성이었다.

임시정부는 장정시기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악조건은 많고도 심각했다. 일본군의 추적을 피하고 파도리느라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다는 사실, 또 그런 과정에서 정부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점, 거기다가 의열단을 중심축으로 삼고 임시정부 주변의 정당들이 통합하면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일이 생긴 점이 그런 것이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이런 난국을 헤치고 나가면서 蔣介石과 담판을 가져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초급장교 양성을 지원하도록 이끌어 내기도 했다.

장정시기는 일제의 중국 침공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만주침공 이후 괴뢰 만주국 건국,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이 그러한 과정이었다. 누구나 본격적인 중일전쟁, 곧 독립의 기회가 눈앞에 닥쳐왔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군대 조직이 급선무였다. 임시정부나 주변 세력 모두 군사력 양성에 활동의 초점을 모았다.

김구는 한인애국단의 투쟁에 힘입어 蔣介石과 회담을 가졌다. 남경 중앙육군군관학교 안에 있던 총통관저에서 그를 만나, 한인청년들을 중국군관학교에 입교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낙양군관학교에 한인청년을 위한 특별반을 만든 것은 바로 그 결실이었다. 이때 임시정부는 북만주에서 활약하던 한국독립당의 당군인 한국독립군 지도부를 초빙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33년 9월부터 그해 말까지 김구의 지원금으로 李靑天을 비롯한 재만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의 지도세력은 관내지역으로 이동하였다.¹³⁾ 이들은 한창 무르익고 있던 對日戰線統一同盟에 참가하고 김구와 합의한 대로 洛陽分校에서 한인청년을 군사간부로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제2총대 제4대대 육군군관훈련반 제17대'였다.¹⁴⁾ 김구와 이청천 및 김원봉이 각각 파견한 청년들이 낙양에서 군사간부로 육성되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 교육이 완료되지 못하자, 김구계열의 청년들은 남경의 중앙육군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

임시정부는 1937년 12월 장사로 이동하여 지나간 여정을 지나는 동안 군사조직을 만들었다. 1939년에 柳州에서 탄생한 韓國光復陣線靑年工作隊가 그것이다. 이어서 임시정부는 綦江에 도착한 뒤 軍事特派團을 조직하여 西安으로 파견하였다. 당시 격증하고 있던 한인들을 포섭하여 장차 군사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군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전략이었다. 이것이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설되는 기초가 되었다.

장정시기에 초급장교 양성에 먼저 성과를 올린 쪽은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이었다. 황포군관학교

13) 한상도, 『대한민국임시정부』Ⅱ(장정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64.

14) 한상도, 『대한민국임시정부』Ⅱ(장정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p.71.

를 졸업한 의열단 단장 김원봉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중국국민당정부의 군사위원회에 많은 동기생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열단은 남경 주변에 세 차례에 걸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치하여 초급간부를 양성해냈다. 이후에도 의열단은 한인청년들을 모집하여 星子軍官學校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군관학교에 파견하였고, 초급간부의 수를 늘어갔다. 의열단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민족혁명당은 남경에서 양성한 군사간부로 무한이 함락되기 직전인 1938년 10월 朝鮮義勇隊를 조직하였다.

장정시기에 임시정부는 주변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임시정부 주변에는 여러 개의 정당조직이 등장하였으나, 임시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김구가 일본의 집요한 추적을 따돌리는 동안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의 관계도 멀어졌다. 그런 틈에 임시정부에 거리를 둔 세력들이 정당을 조직하고, 또 이를 통합하는 길을 걸었다. 의열단 주력이 정당체제로 전환하였고, 남경에서 조직된 한국혁명당과 李青天의 만주 한국독립당이 통합하여 신한독립당을 만들었다. 이들이 나서서 1935년 7월 조선민족혁명당을 건설했다.¹⁵⁾ 그릴 때 趙素昂마저 임시정부의 유일여당이던 한국독립당을 뛰쳐나가 거기에 합류하였다. 여기에 집결한 인물은 ‘反臨政·非金九’ 세력의 결집을 표방하고 임시정부 해체를 요구하였다.¹⁶⁾ 그러자 김구·宋秉祚·車利錫 등은 1935년 10월 급히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여 유일여당으로서 임시정부를 지탱하도록 만들었다.

한국국민당은 임시정부를 유지하면서 다시 우파 세력의 통합에 나섰다. 조선민족혁명당에 참가했다가 두 달 만에 뛰쳐나온 조소앙 중심의 한국독립당 세력과 협력을 모색하였다. 또 1937년 4월 이청천 세력이 민족혁명당을 탈퇴하여 조선혁명당을 조직하자, 이들과 통합하는 방안을 찾아 나섰다. 이밖에도 정부 주변에는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중간 및 좌파세력 중 金星淑·朴建雄 등이 1936년 남경에서 조직한 조선민족해방동맹, 남화한인청년연맹을 결성했던 柳子明·鄭華岩 등의 아나키스트들이 1937년에 조직한 조선혁명자연맹이 있었다. 비록 군소조직이 있기는 했지만, 관내지역 독립운동계는 민족혁명당과 한국국민당이라는 양대 정당체제로 변모하고 있었다. 임시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이들을 끌어안는 것이었다.

1937년 7월 7일에 일어난 중일전쟁은 또 다시 관내지역 독립운동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김구는 민족혁명당에서 탈퇴한 한국독립당(재건)과 조선혁명당을 한국국민당과 하나로 묶는 연합체 구성에 착수하였다. 그것이 바로 1937년 8월에 만들어진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곧 光復陣線이었다.¹⁷⁾ 이에 대해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선혁명자연맹과 조선민족해방동맹을 묶어 1938년 2월 하순 漢口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 곧 民族戰線을 조직하였다.¹⁸⁾

임시정부를 사수하고 있던 김구가 이들 세력을 통합하는 구체적인 수순 밟기에 들어 시기가 1937

15) 조선총독부경무국보안과, 『고등경찰보』 5, 1935, pp.84~85.

16) 한상도, 「중국 관내지역 독립운동 단체의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사전』(총론편) 하, 독립기념관, 1996, p.461.

17) 선언서를 발표한 날짜가 1937년 8월 17일이었다(金正明, 『朝鮮獨立運動』 2, 1967, p.599.).

18) 內務省警保局, 『社會運動の狀況』 9, 東京: 三一書房, 1972, p.1166.

년 중반이었다. 미국으로 이승만에게 서신을 보내 미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도 참가하는 통합정당 창출에 나선 것이다. 마침 터진 중일전쟁은 이러한 행보에 속도를 더하도록 만들었다. 전시체제에 맞추어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논의하자면, 먼저 통합체를 구성해야만 했다. 그래서 이승만의 답이 오기도 전에 그 사정을 8월 2일자 편지로 알렸다.¹⁹⁾ 이어서 8월 17일 남경에서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재건)·조선혁명당 3개 정당과 미주지역의 6개 단체가 힘을 합쳐 광복진선을 결성하면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말미에 적힌 단체는 다음과 같다.

미주 대한민국민회
하와이 대한민국민회
하와이 대한인단합회
하와이 대한부인구제회
하와이 동지회
미주 한인애국단
원동 조선혁명당
원동 한국국민당
원동 한국독립당²⁰⁾

위의 6개 단체는 사실상 미주지역 독립운동 세력 전체가 여기에 참가했음을 뜻한다. 대한민국민회는 1910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되어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이었고, 1910년대에는 ‘무형의 韓族政府’, 혹은 임시정부에 준하는 조직체로 인식될 정도였다. 나머지 다섯 단체는 모두 하와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직이다. 하와이의 대한민국민회는 이승만이 이끌던 동지회와 갈등을 벌이던 조직이다. 이승만은 상해를 방문하여 6개월 머물다가,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1921년 7월 21일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모아 동지회를 조직하였다. 이것이 16년이 지나는 동안 철저하게 이승만 중심의 조직체가 되었다. 여기에 반해 대한민국민회는 앞서부터 존재했던 조직으로 반이승만 세력이 이를 꾸려 나가면서 꾸준히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朴信愛가 대표를 맡은 대한부인구제회도 하와이에 있던 부인회로서 임시정부에 꾸준히 지원하던 단체였다. 田耕武가 이끌던 대한인단합회도 주로 하와이에 뿌리를 둔 조직인데, 임시정부 지원활동을 펼쳤고, 韓始大가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역시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따라서 미주지역 단체들 가운데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를 지지하는 세력을 제외하면, 대부분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광복진선에 참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광복진선을 조직하면서 중일전쟁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韓國光復運動團體對中日戰局宣言’이 그것이다. 이 전쟁이야말로 한중 양국 민족의 생사와 존망이 걸린 것이라면서 두 민족이 힘

19)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凡金九全集』 4, 대한매일신보사, 1999, p.758.

20)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凡金九全集』 4, 대한매일신보사, 1999, pp.760~761.

을 합쳐 일제를 분쇄하자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치기념일인 8월 29일자로 연거푸 선언을 발표하여 양 민족의 연합 전선을 주문하고 나섰다.²¹⁾

물론 광복진선에 동참했다고 모두 임시정부 자체에 속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국민당과 임시정부 주변에서 움직이던 한국독립당(재건)과 조선혁명당은 임시정부에 합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미주지역 6개 단체도 임시정부를 지탱하는 조직으로 평가해도 틀리지 않는다. 임시정부는 중일전쟁 발발 시기에 들어 중국관내에서 활약하던 우파세력을 아우르고, 나아가 미주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을 끌어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정기에 국외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미주지역을 제외하면 임시정부와 관계를 가질 곳이 없었다. 만주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조직 지도부가 이동해온 데다가, 연해주에서는 동포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고난의 길을 걷던 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임시정부가 가지는 국외 독립운동 세력은 역시 중국관내지역을 기본으로 삼고 미주지역 독립운동 단체들과 연계를 가지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므로 임시정부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광복진선과 민족전선이라는 두 개 연합체제가 형성되자, 미주지역 단체들도 이들 연합체와 연계하였다.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나선 조직은 바로 광복진선에 참가한 세력이었고, 다른 단체는 임시정부에 참가하지 않고 있던 민족전선에 끈을 연결하고 있었다.

V. 중경시기(1940~1945)

중경시기는 임시정부가 다시 안정을 되찾고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에게 통합을 추진하던 때였다. 이 때 힘을 쏟은 분야는 세 가지였다. 우파 정당의 통합, 좌파를 비롯한 주변 정당 조직 통합을 통해 통합정부 달성, 국토를 회복할 때 완성할 국가상 마련, 군대 조직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좌우합작을 이룬 통합정부만 빼놓고는 1942년 이전에 모두 달성되었다. 1940년 5월 8일에 하나로 통합하여 결성한 한국독립당(중경)은 비록 우파진영만의 통합이기는 하더라도, 광복진선 결성 이후 줄곧 추진된 우파진영 3당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 1919년 망명지에서 건국했지만, 머지않아 국토를 되찾아 돌아갈 것을 내다보면서 완성된 국가상을 담아냈으니, 1941년 11월 28일에 마련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그것이다.²²⁾

또 임시정부는 국군인 한국광복군을 조직하였다. 세계대전에 즈음하여 독립전쟁을 펼치는 것만이 아니라, 연합국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군대가 필요했던 터였다. 1940년 9월 15일 김구는 「한

21)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白凡金九全集』 4, 대한매일신보사, 1999, pp.762~766.

22) 간혹 '건국강령'이라는 존재를 내걸고서, 이것이 바로 '건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국토를 회복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국내로 들어갔을 때, 곧 완결·완성된 체제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내세워 앞서 '건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틀린다.

국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원년(1919)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蔣介石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40) 9월 17일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창립함을 자에 선언한다”고 밝혔다.²³⁾ 이를 뒤인 9월 17일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이로써 우파진영은 黨(한국독립당)·政(임시정부)·軍(한국광복군) 체제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 1941년 12월 8일(미국 날짜) 하와이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공습 소식을 듣자마자, 임시정부는 바로 그날(중경 날짜 12월 9일) 「大韓民國臨時政府 對日宣戰 聲明書」를 발표하였다.²⁴⁾

중경시기에 국외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 바로 임시정부 주변에 맴도는 반임시정부 세력이었다. 조선민족혁명당과 그 당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대표적이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를 끌어들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 마침 蔣介石의 뜻을 배경으로 삼아 임시정부는 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를 끌어안는 조치를 취했다. 임시의정원은 1942년 10월 제34회 회의에서 임시의정원 의원 선거 규정을 고쳐 조선민족혁명당이 참여할 길을 터놓았다. 그 결과 좌우 통합정부가 이루어졌다. 정치 통합과 함께 군사 통합도 이루어졌다. 이미 1941년 1월에 무정부주의 청년들이 핵심을 이룬 韓國靑年戰地工作隊를 광복군 제5지대로 흡수했던 임시정부는 1942년 4월 20일 제28차 국무회의에서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의 통합을 결의하였다.²⁵⁾ 조선의용대는 7월에 해체되고 광복군 제1지대로 새롭게 편제되었으니, 사실상 흡수 통합이었다. 이로써 연안의 조선의용군을 제외한 관내지역의 모든 군사조직이 임시정부 아래 통합된 것이다.

임시정부는 좌우합작 정부를 구성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가졌다. 임시정부가 다시 국외 독립운동 세력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던 바탕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우선 중국관내지역에서 중국공산당 권역에서 활약하던 한인세력을 교섭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공산당의 본부 延安에 자리 잡은 華北朝鮮獨立同盟(이하 독립동맹), 그리고 그 무장조직인 조선의용군과 연계를 추진한 것이 그 핵심이다.

독립동맹은 1942년 7월 조직되었다. 중국공산당의 장정에 참가한 武亭과 1938년 이곳으로 합류한 崔昌益과 許貞淑, 그리고 이들의 유도로 1941년에 화북으로 복상한 조선의용대 주력이 합류하여 만들어졌다. 위원장은 1942년 4월 연안에 도착한 金料奉이 맡았다.²⁶⁾ 조선의용군은 복상한 병력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름을 갖고 있다가, 독립동맹 결성에 맞추어 개편된 것이다. 조선의용군 사령관은 무정이 맡았고, 지대장은 朴孝三이었다. 조선의용군은 독립동맹과 黨軍이었다. 독립동맹은 일종의 정당 조직이고, 조선의용군은 독립동맹의 무장조직이었다.

임시정부는 이들과 연계하는 계획을 밀고 나갔다. 임시정부와 독립동맹의 통일전선을 도모하고, 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을 하나로 모으는 방안을 찾아나갔다. 마침 분위기가 좋았다. 국공합작으로 周恩

23)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獨立運動史』 6, 1973, pp.177~178.

24)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pp.174~175.

25)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 3, 연세대출판부, 1975, p.112.

26)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Ⅲ - 중경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 101~102.

를 비롯한 중국공산당 주요인물들이 중경에 포진해 있었고, 또 그들이 한국광복군총사령부성립전에 참석하는 등 임시정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터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안의 조선독립동맹도 임시정부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金學武가 김구와 金料奉의 서신 연락을 맡았던 사실,²⁷⁾ 1941년 10월 연안에서 개최된 동방각민족반파소대회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명예주석단에 추대하고, 독립동맹 晉西北分盟 성립대회에서 孫文·蔣介石·毛澤東과 함께 김구의 초상화를 대회장에 내걸었다.²⁸⁾ 이러한 독립동맹의 태도에 임시정부도 화답하고 나섰다. 임시정부가 『獨立新聞』에 「조선의용군의 깃발, 만리장성에 휘날리다」라는 기사를 실어, 그 활동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²⁹⁾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그 논의는 1944년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조선독립동맹 위원장 김두봉 사이에 이루어졌다.³⁰⁾ 해방 이후 남북협상을 도모하는 가운데 1948년 2월 16일 김구가 김두봉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한 정황이 드러난다. 즉 4년 앞서 연안에서 김두봉이 보내온 편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역과 파벌을 불문하고 성심으로 단결하여 실제적인 일로 연락을 한다면, 압록강에 군대를 모으는 일의 실현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만일 여러 분께서 동의한다면 내(김두봉; 필자 주)가 중간에 나서서 알선하겠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³¹⁾ 이로 보아 임시정부와 독립동맹 사이에 군사력 통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처 결실을 맺기에 앞서 전쟁이 끝나버렸지만, 이 노력은 중국국민당정부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 관내지역 전체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임시정부의 자세는 적극적이었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가 개최될 때, 임시정부는 독립동맹측에 대표를 파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카이로회의에서 결정된 ‘상당시기’를 거절할 것, 국제공동관리 문제를 거절할 것” 등 모두 7개 항에 대해 협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³²⁾ 또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 張建相을 延安으로 파견한 사실도 두 세력 사이의 연합노력을 보여준다.³³⁾ 논의가 급히 진척되었지만, 일제 패망이 먼저 닥치는 바람에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올리지도 못하고 말았다.

또 임시정부는 멀리 러시아 동부지역, 연해주의 ‘한인부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여기에 서 말하는 한인부대는 만주에서 활약하다가 연해주로 이동한 김일성 중심의 항일유격대를 일컫는다.³⁴⁾ 이들은 1940년 10월 소련으로 옮겨가, 1942년 7월 하바로프스크에 東北抗日聯軍教導旅(88특별보병여단)로 편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³⁵⁾ 임시정부는 이미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행적을 알고 있었

27) 韓洪九, 「華北朝鮮獨立同盟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67.

28) 韓洪九, 「華北朝鮮獨立同盟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67.

2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8, 1975, pp.198~199.

30)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Ⅲ - 중경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104~105.

31) “我們不問地域南北 派別異同 誠心團結 實事連絡 始能促進會師鴨綠之實現 諸位若能同意 淵可以從中斡旋”(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金九·金奎植이 金料奉에게 보낸 서신」, 『백범김구전집』 8, 대한매일신보사, 1999, p.722)

32) 「對華北朝鮮獨立同盟要求書」(素昂文類 619).

33) 한시준, 「1940년대 전반기의 민족통일전선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 한울, 1995, p.169.

34)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Ⅲ - 중경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108.

다. 김구가 주도한 한국국민당 기관지 『韓民』 제14호에 ‘武裝團의 活動’이란 제목으로, 1937년 6월 4일 항일유격대가 普天堡 경찰서와 면사무소를 습격한 기사를 보도한 일이 있었다.³⁶⁾ 이러한 점은 조선민족혁명당의 잡지에도 마찬가지로 실렸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김일성의 무장부대에 대해 기록하기도 했을 정도였다.³⁷⁾ 그런데 1940년 10월 김일성 부대가 소련으로 이동한 뒤, 임시정부는 그 뒤 소식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임시정부는 이들과 연계할 계기를 만났다. 1944년 7월 李忠模의 등장이 그것이다. 그는 러시아 지역의 한인들 실상과 활동을 보고하였다.³⁸⁾

러시아지역 한인들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면서, 임시정부는 이들과의 연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김구가 1944년 9월 5일 장개석을 면담할 때, 備忘錄이란 이름으로 6개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러시아 중앙아시아 일대의 1백만 한국인에 대하여 교통 및 연락 등의 방편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³⁹⁾ 러시아 지역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중국측의 양해가 필요하였고, 이에 대한 협조를 중국측에 요구한 것이다. 김구가 제출한 6개 요구사항에 대해, 중국측은 소련지역 韓僑와 연락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제출하면 교통노선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⁴⁰⁾

김구는 소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들과의 연계를 위해 연락원을 파견하였다. 연락원은 이충모였다. 그는 1945년 3월 이후 중경을 떠났다. 하지만 파견원이 가던 도중에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이것도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⁴¹⁾ 이것도 임시정부가 국외 독립운동 세력들을 광범하게 연대하여 독립운동을 끌고 나가려던 전향적인 조치였다.⁴²⁾ 일제의 패망과 해방을 내다보면서 임시정부가 연해주 한인부대와 상호 연계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임시정부는 미주지역 한인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사실 임시정부가 기댈 수 있는 국민적 토대가 미주지역 동포들뿐이었다. 중국관내와 만주는 일본군 침략으로 무너지고, 연해주 동포마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터라 어쩔 수 없는 지경이었다.⁴³⁾ 임시정부가 체제를 정비하고 국외 독립운동 세력들에게 적극 연계 작업을 도모하자, 미주 동포들도 이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35)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1999, p.486.

36) 『한민』 제14호, 1937년 6월 30일(최기영 교수 소장자료).

37) 동삼성 방면에 우리 독립군이 벌써 자취를 감추었을 터이나, 신흥학교 시절 이후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히려 김일성 등 무장부대가 의연히 산악지대에 의거하여 엄존하고 있다. 이들이 압록 두만을 넘나들며 왜병과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용군과 연합작전을 하고 러시아의 후원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상유지를 하는 정세라, 관내 임시정부 방면과의 연락은 극히 곤란하게 되었다.(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p.315)

38) 『蘇聯境內百萬韓僑 參加反法西斯戰爭』, 『독립신문』 1944년 8월 29일.

39)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5, 대한매일신보사, 1999, pp.542~543.

40)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5, 1999, 대한매일신보사, p.546.

41)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Ⅲ - 중경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111.

42)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에 있던 한인부대에서도 임시정부와의 연계를 모색하였다. 김일성 회고록은 그러한 정황을 알려준다. 립시정부가 광복군을 조직한 것도 중경에 있을 때입니다. 립정이 자기 산하에 광복군과 같은 무장력을 내어 온 것은 그들의 활동에서 하나의 전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그들과도(광복군) 손을 잡아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김구계렬과의 합작이 성사되면 조국해방을 위한 최종작전이 벌어질 때 그들의 무장력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였습니다.(『세기와 더불어』 8, pp.410~411)

43)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Ⅲ - 중경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122.

1940년 5월 민족주의 계열 3당이 통합하여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였을 때, 하와이 애국단과 團舍會가 한국독립당 하와이총지부로 개편하고,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나선 일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⁴⁴⁾ 또 광복군을 창설하자, 『신한민보』는 “광복군 조직은 3·1운동 이후 처음 있는 큰 사건”이라며 “힘이 있으면 힘을 돈이 있으면 돈을 내라”며 모금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⁴⁵⁾

임시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는 미주지역의 한인사회의 결집을 촉진시켰다. 1941년 4월 재미한족대회가 열리고, 북미대한민국민회·동지회·하와이국민회·중한민중동맹단·대조선독립단·한국독립당 하와이총지부·의용대 미주후원회연합회·하와이대한인부인구제회·하와이여자애국단 등 9개 단체가 연합하여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⁴⁶⁾ 이는 미주한인사회가 통일을 이룬 최대의 독립운동 기구이자,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해 조직된 연합체였다. 임시정부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긴밀한 연계를 맺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임시정부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외교위원부로 하여금 대미외교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임시정부는 1941년 6월 4일 駐美外交委員部 설치를 결의하고, 이승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⁴⁷⁾ 임시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과의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는 동안 미주 동포들은 임시정부에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맡았다. 독립금을 모아 3분의 2를 임시정부에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재정 후원에 나섰던 것이다.⁴⁸⁾

임시정부가 벌인 국외 독립운동 가운데 프랑스에 파견된 외교원의 노력도 빠트릴 수 없다.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 목표는 열강의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의 해방투쟁을 벌이던 정부 조직을 승인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프랑스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였다. 일찍이 1919년 파리위원부가 설치되었다가 해체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외무부가 그곳에 파리고려통신사와 통신원을 두었는데, 그 통신원으로 徐嶺海가 있었다.⁴⁹⁾ 1940년부터 다시 나타난 그의 활동은 머지않아 프랑스가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 결실이 1945년 3월 임시정부를 프랑스가 승인하고, 서영해를 주프랑스 대표로 임명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⁵⁰⁾

44)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8, 1974, pp.734~735.

45) 『신한민보』 1940년 2월 29일자 및 6월 20일자.

46) 홍선표, 「하와이 해외한족대회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pp.205~210.

47)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외무부), 2007, p.7.

48)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Ⅲ - 중경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 125~126.

49)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Ⅲ - 중경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p. 187~188.

50) 「프랑스주재 대표 임명에 관한 국무위원회의 공한」,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외무부), pp.114~115; 「임시정부와 주중프랑스대사관과의 우의관계」,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외무부), p.88; 『대공보』 1945년 3월 23일자(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외무부), p.90.

VI. 맺음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던 바탕에는 국외 독립운동이 있었다. 나라 밖에서 만들어진 독립운동의 역량이 이를 탄생시켰고, 그들의 지향이 한국역사에서 최초의 민주국가 공화정부를 창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건국과 정부 수립에는 국외지역 독립운동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건국과 정부 수립 이후 이것이 유지되는 데에도 국외 독립운동이 기여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시기에 따라 기여한 지역과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중국 관내지역의 독립운동이 단연 절대적이었다. 정부가 상해에 머물던 시기에는 주로 상해와 남경, 천진, 무한, 광둥 등에서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임시정부는 수립기에 만주지역 독립군을 끌어안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실이 곧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의 편입, 한국광복군총영의 직할로 나타났다. 또 연해주에서 결성된 대한국민의회와 통합을 일구어냈고, 미주지역에서도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따라서 건국과 정부 수립기에 국외 독립운동 세력의 절대다수가 임시정부를 지지했던 것이다.

192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임시정부가 약화되어 갔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추진되었다. 만주 독립군마저 자유시침범 이후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국민대표회의와 유일당운동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였고, 국무령제를 채택하여 만주지역 지도자를 초빙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마저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임시정부는 국무위원제를 채택하여 정면 돌파를 시도하였다. 이 시기에 임시정부에 생명줄을 이어주던 세력은 미주 동포들이었다. 이봉창·윤봉길 의거로 대표되는 한인애국단의 투쟁도 그러한 지원 위에 가능했다.

윤봉길 의거 이후 장정기에 들어 임시정부는 극도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었다.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라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계라거나 지휘는 아예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주변 독립운동정당 조직과 연합을 도모하였다. 그러면서 미주지역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 작업을 펼쳤다.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곧 광복진선의 결성이 바로 그 결실이다.

1940년 중경에 도착하면서, 임시정부는 안정을 되찾았다. 우파 3당을 통합한 데 이어, 주변의 반임시정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데 힘을 기울였다. 조선민족혁명당을 임시정부 안으로 끌어들이고 조선의용대를 한국광복군으로 편입시켰다. 다음으로는 중국공산당 영역에 있던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과 연계 작업을 펼쳤다. 서로 서신이 오가고, 대표가 파견되면서 협작을 향한 작업이 진척을 보였다. 그럴 무렵 임시정부는 다시 멀리 떨어진 소련 동부지역 하바로프스크에 대표를 파견하여 김일성의 항일부대와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화북과 하바로프스크에 대한 연계 작업은 일제 패망이 먼저 닥치는 바람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은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열린 자세를 보여준다. 국외 독립운동 조직을 연계하고 포용하려는 자세가 그것이다.

중경시기 임시정부에게 ‘국민’다운 역할을 맡은 것이 미주 동포사회였다. 이들은 인구세와 성금에

해당하는 독립금을 모아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결성되고, 임시정부는 외교의 긴요한 사정에 따라 주미외교위원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외 독립운동 세력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 건국과 정부 수립 자체가 그 세력의 역할과 기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도 정부의 존속 자체가 국외 독립운동 세력이라는 존재를 위에 가능했다. 연계성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그 편차는 컸다. 임시정부는 고난을 이겨내며 정착하고, 또 새롭게 투쟁역량을 키워 나갔지만, 국외 독립운동 세력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이 대세였다. 그나마 남아 있는 투쟁세력마저도 거리가 멀어지고 연락이 어려워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는 상황은 정부로서의 기능을 펼칠 수 없도록 길을 막았다. 그런 어려움은 당시 식민지해방투쟁을 벌이던 국가와 민족들이 겪던 공통적인 일이었다. 물론 내부적인 한계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외부 환경은 더욱 냉혹했다.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국외 독립운동 세력을 끌어안으려는 임시정부의 자세는 변함없었다. 그들을 연계시켜 독립을 향한 민족 총역량 규합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은 것이 임시정부의 한결같은 방향이었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국외 동포사회의 기대와 지원이 이를 증명한다.

〈참고문헌〉

- 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 1-4, 연세대출판부, 1975.
-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4-5, 대한매일신보사, 1999.
- 한국근현대사학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6.
-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I (상해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한상도, 『대한민국임시정부 II (장정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III (중경시기)』,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김희곤 외, 『제대로 본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식산업사, 2009.
- 한시준 외, 『대한민국의 기원 :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09.
- 申肅, 『나의 일생』, 일신사, 1963.
-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49.
- 안창호, 『도산일기』

- 조선총독부경무국보안과, 『고등경찰보』 5, 조선총독부, 1935.
- 내무성중보국, 『社會運動の狀況』 9, 東京: 三一書房, 197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6, 1973.
- 한흥구,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1999.
- 국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8, 1974.
- 홍선표, 「하와이 해외한민족대회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6.
- 『독립신문』
- 『한민』
- 『신한민보』

Abstrac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ROK and Overseas Independence Movement

Kim, Hee-gon*

This study is focused on tracing and figuring out the relation betwe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ROK and overseas independence movements. The relation can be represented by two sentences of remark. One, the Provisional Government itself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many preceding overseas independence movements. Two, overseas movements also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maintenance of the government. It would be better to examine the subject by dividing the time line into three different periods.

The first period is Shanghai period(1919~1932). The KPG tried to establish administration lines to take control over Korean people in the homeland. In order to specify the plan, the government actually appointed some regional officials and collected poll tax from Koreans in the peninsular. The government incorporated many military organizations of Manchuria into the official military force of the KPG. KPG also succeeded in consolidating its body with Korea Assembly(大韓國民議會) in Vladivostok, Russia.

The second period is fleeing period(1932~1940). After the successful bombing deed of Yoon Bong-gil, KPG had to undergo extremely difficult situation as the government started fleeing from the Japanese pressure. The government had to move around the vast inland of China for eight years. Though it was almost impossible to liaison with other organizations in other areas, the members of the government never gave up making coalition with other parties and figures. Such frequent effort of contact made it possible to form a coalition of independence organizations under the name of the United Association for Korean Liberation.

The third period is Chungching period(1940~1945). The KPG tried to restart its combining work of independence organizations. As a response to such efforts, three right-winged parties were consolidated to form the Korea Independence Party. The government also made effort in inviting unfriendly groups like Korean Volunteer Unit to join KPG. The next step they took was to form a coalition with groups far away such as Korea Independence Alliance in Huabei(華北朝鮮獨立同盟)

* Professor, Andong University

and Korean Volunteer Army. One interesting fact found is that the KPG tried to make contact with Kim Il-sung in Khavarovsk. The most helpful 'citizens' to do their 'civil duties' were Koreans in America. They payed their poll tax and also made donations for KPG operations. In the middle of World War II period, they formed The United Korean Committee in America. The KPG established the Office of Representatives in US.

There is a close relation between the KPG and other independence movement groups. Such a relation is natural to be formed because the birth and maintenan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ere enabled by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other groups around the world. The aspect of the relation changed as time passed and location of the government moved. The members of KPG did their best to maintain the government and proceed the independence movement.

[Key Words] Provisional Government of ROK, Provisional Assembly of ROK, Shanghai period, Fleeing period, Chungching period, Korea Independence Party, Korea Independence Army,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Korean Volunteer Unit, Korean Volunteer Army